

고교생들도 “임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5·18 전국 고교생 토론대회... 정부 폐기 추진 비판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폐지 계획은 올해 5·18 주간 전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던 핵심 이슈였다. 정부가 제33주년 5·18민중항쟁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신할 공식 추모곡을 별도로 제작하기로 한 사실이 광주일보 보도(4월 25일 6면)로 처음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역사 지우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는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본회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가보훈처는 뒤늦게 “기념곡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에서 제외하고자 했을까. 청소년들은 그 이유를 무엇

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24일 열린 ‘제 12회 5·18 전국 고교생 토론대회’는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과 ‘라 마르세예즈’라는 주제로 열린 결선 토론회에는 전국 고등학교에서 참여한 24개 팀이 날카로운 시각과 논리를 내세우며 정부의 퇴출 의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본선을 거쳐 최종 결선에 진출한 경남 거창고·민족사관고·서울 하나고 등 3개 팀. 이들 모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추모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차별화된 시각으로 정부를 비판했다.

거창고 ‘아우라지’ 팀은 “라 마르

- 경남 거창고생
기득권들이 노래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 서울 하나고생
보수·진보간 다른 인정 민주주의 제대로 봐야
- 민사고생
보훈처, 역사적 사실 불인정 정치적 이용 인식 때문

세예즈’는 프랑스 혁명 후 국가로 채택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식에서조차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이는 톨레랑스(tolerance·관용)가 부족한 탓이자 기득권들의

인식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학생은 “기득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자신들엔 아마도 숨기고 싶은 과거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나름의 시각을 제시했다.

하나고 ‘신세계’팀은 정치적 성향 차이가 빚어낸 결과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들은 “보수와 진보 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 차이만 서로 내세우고 그러다보니 이런 일이 빚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족사관고 ‘2As’팀은 보훈처의 주장을 꼼꼼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이들 팀은 “보훈처가 주장한 대로 (가사 내용)이 과거해 (5·18 추모곡으로) 제정할 수 없다는 방침은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인식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주장을 폈다.

하나고 토론팀에 참여한 서다영(17·2년)양은 “5·18 기념식은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자리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추모곡으로 채택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5·18 기념재단 주관으로 치러진 이번 토론회에서 민족사관고가 대상을 차지했다. 서울 하나고·경남 거창고는 각각 금상을 수상했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4월~6월 10일까지 296개팀(2인1조) 중 본선 진출 24개팀을 가려낸 뒤 지난 23일~2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최종 결선 3팀을 선정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0분 해질 19시 08분 달출 23시 09분 달몰 11시 12분

다시 무더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덥겠다.

광주	맑음	23/31℃
목포	맑음	23/31℃
여수	맑음	23/30℃
나주	맑음	21/31℃
완도	맑음	22/31℃
구례	맑음	21/31℃
강진	맑음	21/30℃
해남	맑음	21/31℃
장흥	맑음	21/31℃
순천	맑음	20/30℃
영광	맑음	22/30℃
영도	맑음	21/30℃
전주	맑음	23/31℃
군산	맑음	22/30℃
남원	맑음	21/30℃
옥산도	맑음	23/29℃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불쾌지수
위험 높음 높음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7(화)	28(수)	29(목)	30(금)	31(토)	9/1(일)
날씨						
최저/최고	23/32	22/32	25/28	24/27	22/27	22/28

특성화고생 초과 근로

해당기업 과태료 부과

특성화고생들이 현장 실습을 할 때 표준 근로 시간을 넘어서 일할 경우 해당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성화고생은 현장실습 시간이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다만 기업과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담긴 과태료 규모는 최대 1000만원이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3학년 1학기 종료 후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시·도 교육청의 승인을 얻으면 3학년 1학기 종료 이전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 위반전력이 있는 기업은 현장실습 파견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

/연철뉴스



한가로운 연꽃 산책

휴일인 25일 오전 연꽃이 활짝 핀 매월농장(광주시 서구 매월동) 앞 연못에서 시민들이 연못에 가로놓인 다리를 거닐며 한가로운 산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근로정신대 할머니 위자료 청구액

1인당 1억에서 2억으로 늘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청구금액을 두 배로 늘렸다.

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오전 광주지법

204호 법정에서 양금액(84)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세 번째 재판을 열었다.

원고 측은 재판에 앞서 1인당 1억

원씩으로 책정했던 위자료료 2억원으로 늘려 청구했다.

원고 측은 이상갑 변호사는 “최근 서울고법의 유사 소송에서 ‘피고(신일철주금)가 지급할 위자료는 적어도 1억원이지만 원고가 1억원만 청구했다’며 1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증언 근거를 밝혔다.

강제 징용 당시 일본은 14세 이상 미혼자를 동원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소송의 피해자들은 12~13세에 징용됐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여성으로서 오해를 받아야만 했던 사정도 감안됐다.

재판부는 또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받아 재판을 마치고 이후 선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고는 10월 말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현경기자 chadol@kwangju.co.kr

불타는 대지 식힌 단비

광주·전남 완전해갈엔 부족

늦더위 이어지다 추위 올 듯

한 달이 넘도록 폭염으로 달궂었던 대지를 적셔준 단비가 지난 주말, 광주·전남지역을 적셨다.

2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린 비는 25일 오후 4시까지 ▲흑산도 207mm ▲영광 205.5mm ▲장성 174.4mm ▲담양 170.5mm ▲광주 155.5mm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동안 폭염으로 인해 메마른 광주·전남지역의 해갈엔 역부족에 따르면 영산강 유역 4대호(광주호·담양호·나주호·장성호)의 저수율은 3~6%가량 증가했지만, 평년 저수율 76%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저수지가 작고 담수능력이 부족한 해남, 강진 등 서남해안 지역이나 진도, 신안, 완도와 같은 도서지역은 더 안타까웠다.

비와 함께 유량이 늘면서 강과 바

22~25일 광주·전남 지역별 강수량

흑산도	207	보성	156
영광	205.5	광주	155.5
장성	174.4	광양	152.5
담양	170.5	홍도	152
거문도	166.5	함평	141.5

다를 덮고 있던 녹조와 적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남해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고밀도의 적조가 관찰되고 있어 관계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강한 일사로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에 이어지겠고,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는 29일과 30일에 광주·전남지역에 한 차례 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이 25일 발표한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은 9월까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뒤, 10월에 접어들면서 평년과 비슷한 가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전국시도지사협의회 www.gaok.or.kr

흔들리는 지방자치, 무너지는 지방재정

지방정부와 어떠한 협의도 없는 일방통행식 취득세율 인하 방침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듭니다.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정책을 통한 부동산 대책은 지방자치 자립적 행동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정책의 종단을 촉구합니다.

취득세율 인하